

청소년 오케스트라·말박물관... 농촌 문화 위해 렛츠런!

마사회, 농어촌 문화나눔 공로 '우수기관' 인증

소외계층에 문화참여 기회 제공
 100억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
 구조적문제 해결로 질적 도약을

한국마사회가 농어촌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3일 마사회에 따르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은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며, 매년 문화예술 후원을 많이 한 단체와 기업 등을 심사한다.

현재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4개,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29개 등 총 33개 단체와 기업이 인증 받았다.

올해는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럭스나인(주), ㈜세아홀딩스, ㈜파라디이스, ㈜하나투어까지 5개 기업이 새로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달 20일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린 '2018 예술이 빛나는 밤에'서 인증식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이 진행됐으며 각 기관에게 인증패가 전달됐다.

마사회는 2014년 렛츠런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해 농어촌 지역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는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 농어촌 희망재단 '마을 공동체 문화 지원 사업', '말박물관 운영', '사회공헌 페스티벌' 등이 있다.

특히,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한국형 '엘 시스템'로 불리며, 지휘자 급



지난 5월 러시아 사할린서 열린 '한-러 청소년 합동 연주회'에 참가한 마사회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 모습. /마사회

난새와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엘 시스템이란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시스템을 가리키는 용어로 음악교육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부터 전국 16개 총 900여 명의 농어촌 청소년들이 단원으로 활동하며, 2017년에는 러시아 사할린 주와 업무협약을 통해 합동 연주회 및 음악캠프를 진행했다.

한국의 마문화를 소개하는 '말박물관'



지난 10월 25일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기부달리기 '국민드림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 한국마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다.

1988년에 개관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말 박물관은 말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유물을 소장 및 전시하고 있으며, 무료 대관 기회를 제공해 70명 이상의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김낙순 마사회 회장은 "한국마사회는 국민의 여가 선용을 도모하는 기업 설립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도시민뿐만 아니라 농어촌에도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마사회를 국민들의 일상 속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사회는 2014년 3월 렛츠런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을 통해 연간 약 100억원의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실업과 청소년 문제, 사회 양극화, 도농 격차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사회공헌 사업의 질적인 도약을 꾀하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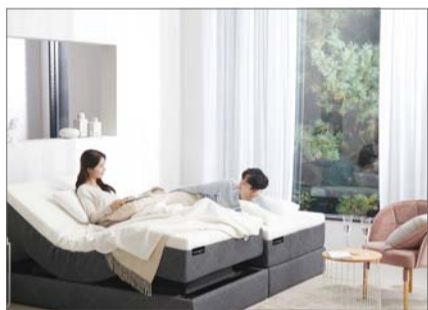
웅진렌탈 일체형 '슬립 컨트롤 모션베드' 출시

웅진그룹의 웅진렌탈은 '슬립 컨트롤 모션베드' (사진)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사용자의 수면 질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웅진렌탈이 선보인 경도 조절 슬립 컨트롤 매트리스에 이은 두 번째 슬립 컨트롤 시리즈다.

이번 신제품은 매트리스와 모션 무브먼트가 하나로 이뤄진 일체형 모델이다. 모션베드 전용 프레임으로 매트리스 굴곡을 만들어 내는 기존 방식과 달리, 매트리스 자체에 모션 기능을 갖춰 사용자 몸에 밀착한 듯 보다 편안한 움직임을 제공한다.

매트리스의 쿠션감을 더해주는 슬립 컨트롤 모션베드 전용 토퍼는 7cm 두께로 고밀도 메모리폼과 천연 라텍스를 양면에 적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용했다. 부드러운 쿠션감을 원할 경우 메모리폼 면을, 보다 쾌적한 수면을 원할 경우 통기성이 뛰어난 라텍스 면을 각각 위쪽으로 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몸과 맞는 매트리스 상단 커버는 피부 자극이 적은 친환경 텐셀 소재를 사용했다. 탈착 가능한 분리형으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세탁할 수 있고, 방수레이어가 적용되어 음식물, 진드기 등으로 인한 매트리스 오염도 방지한다.

신제품은 가로 110cm, 세로 200cm 슈퍼싱글(SS) 사이즈로 출시됐으며, 기존 침대 프레임이나 바닥에도 설치할 수 있다. 매트리스만 사용 시 309만원, 슬립컨트롤 모션매트리스 전용 프레임과 묶음 주문 시 359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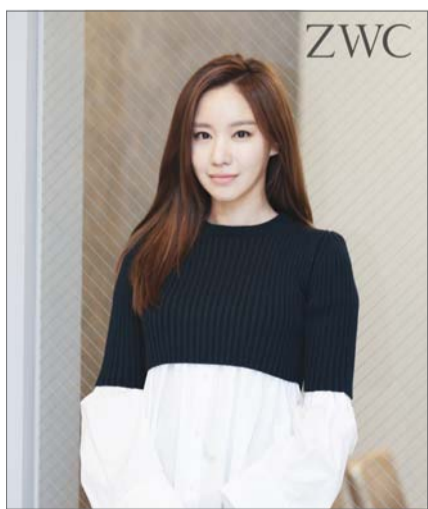
뷰티분야 진출 자이글

김아중 새 모델로 계약

자이글이 화장품 등 뷰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다. 자이글은 웰빙뷰티 사업부문을 진출을 위해 배우 김아중(사진)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웰빙뷰티 사업은 자이글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신규 사업으로 올 연말 'ZWC'라는 뷰티 브랜드를 론칭하고 뷰티 디바이스와 화장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이글은 밤새, 연기, 기름 땀이 없는 에코 제품 '자이글 그릴'을 중심으로 한 웰빙키친 사업에 이어 ZWC 런칭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웰빙뷰티, 웰빙라이프 사업의 매출을 끌어올려 명실상부한 웰빙 기업으로 변신한다는 계획이다.



자이글은 ZWC 런칭에 앞서 연말 출시 예정인 산소케어 ZWC 오투마스크와 오투 기초화장품의 모델로 배우 김아중과 계약을 맺고 본격 제품 출시 준비에 들어갔다.

/김승호 기자

인천공항 '밀리니엄홀'에 27m '미디어타워'

LED전광판에 8K 고화질 영상 구현 세계시간·날씨예보 등 콘텐츠 표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중앙의 밀레니엄홀에 새로 들어선 초대형 미디어타워를 정식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인천공항 미디어타워는 가로 10미터, 폭 3.5미터, 높이 27미터로 이뤄졌다.

외벽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LED전광판은 8K(4864×6656 픽셀)의 고해상도 영상 구현이 가능하며, 크기와 해상도 모두 국내 실내 LED전광판 중 최고 수준이다.

엘리베이터 탑승 공간인 미디어타워의 내측에도 영상 송출을 위한 대형 미디어월 2개(각각 55인치 모니터 51대로 구성)가 설치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미디어타워의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세계시간 및 날씨예보와 같은 여행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표출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운영 개시와 함께 독일의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인 로만 드 기우

리의 '뷰티풀 월드(Beautiful World)'와 인천공항 명예 홍보견 '달리'의 세계 여행 이야기를 다룬 '레츠고 달리(Let's Go Dearly)' 두 작품이 전시됐다.

이달 중 2종의 작품이 더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 주요 도시의 현재시각 및 날씨예보를 움직이는 영상으로 표현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지 시간대와 날씨상황에 맞춰 배경그림이 변하는 기술이 도입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미디어타워가 스마트 공항, 예술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공항을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일영 사장은 "이번에 새로 선보이게 된 미디어타워는 여객 분들께 색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T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대외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은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이용객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미디어타워.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시상

근로복지공단, 시상식·발표회 개최

근로복지공단은 3일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하는 제10회 '2018년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THE-자람 보육공모전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국 직장어린이집 총 2960건의 출품작 중 328건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공모전은 UCC분야를 신설해 직장보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전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설치 사업장 및 이용 부모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대상을 확대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 보육프로그램, 스토리텔링&사진, 공간 환경디자인, UCC 총 4개 분야로 나눠 공모 접수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40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으로 보육프로그램은 ㈜이랜드월드의 '이랜드코코몽어린이집', 스토리텔

링&사진은 서울보증보험증권의 'SGI서울보증어린이집', 공간 환경디자인은 ㈜녹십자홀딩스의 'GC Childcare Center 어린이집', UCC는 대우조선해양(주) 옥포조선소의 '행복어린이집'이 각각 선정됐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공모전은 직장보육 발전에 걸인차 역할을 하며 직장어린이집을 대표하는 공모전으로 큰 결실을 거두고 있다"며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맞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